

야치보즈

구시로 습원의 늪지대에는 야치보즈라고 불리는 사초 덩불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야치보즈는 마치 긴 머리카락이 자란 머리가 땅에서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초가 자라나면 오래된 잎은 시들고 뾰족한 녹색 새잎이 덩불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면서 사초 잎의 층이 만들어져 머리카락처럼 옆으로 늘어집니다.

야치보즈가 놀랄 만큼 높게 자라는 요인은 눈이 별로 쌓이지 않는 습원 환경에 의한 것입니다. 추운 겨울 동안 땅이 얼면서 사초 덩불의 뿌리가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봄에는 눈 녹은 물이 덩불 주변 땅을 침식시켜 뿌리가 더 드러나게 만들고 덩불이 더 높게 보이게 됩니다. 땅이 얼어붙고 주변 땅이 침식되는 것이 40 년 정도 계속되면 덩불 중에는 40~50cm 높이에 이르는 것도 생깁니다.

야치보즈는 구시로 습원과 근처에 있는 기리타푸 습원(구시로 습원의 미기후와 유사함)에서 볼 수 있습니다.